

[ 사회 ]

■오늘 '입양의 날'...남매 입양 박봉진·강숙씨 가족의 달라진 삶

# 아이 재롱 볼 때 마다 행복 귀가 빨라지고 웃음 되찾아

## 5년째 육아일기...“형편 되면 더 입양하고 싶어”

“아이와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처음 웅얼이를 했을 때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느낌이었죠. 암암리라도 처음 볼 때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수기까지 보냈답니다.”

남매를 입양한 광주북부경찰서 박봉진(47)경사와 부인 강숙(40)씨 부부는 요즘 행복하다. 지난 2002년 입양한 아들 경현(6)이와 지난 2005년 새로 맞이한 딸 부경(3)이의 재롱을 보고 있는 박봉진, 박숙에 계속되는 야근에도 힘이 불끈 솟곤 한다.

박 경사 부부가 입양을 결심한 것은 결혼 10년째이던 지난 2001년. 그즈음 시험관 시술을 7차례나 했지만 아이를 갖는 데 실패한 부부는 웃는 일이 거의 없었다. 부인은 우울증에 시달

리나가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야근이 줄어들고, 이혼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이 곧잘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다.

부부는 어느 날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입양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잘 키울 수 있는지 걱정했지만,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다. 이렇게 만난 아이가 생후 3주가 갓 지난 아들 경현(6)이었다. 부부는 우선 데려다 키워보는 절차(위탁)를 거쳐 한 달 만에 입양했다. 아픈 아이를 간호하느라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지만, 박 경사의 귀가는 빨라졌고 강씨는 항상 웃는 얼굴로 남편을 맞았다. 3년 뒤 딸 부경(3)이도 입양했다. 아들과 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남매를 입양한 박봉진·강숙씨 부부가 10일 집앞 놀이터에서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박 경사는 부경을 입양한 이후 5년째 육아 일기를 쓰고 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몸이 과감치가 될 때도 많지만, 일기를 빼먹은 적이 없다. 그렇게 쓴 일기와 성장앨범이 10권이다. 아이들이 커서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마와 아빠의 맘을 읽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려다.

박 경사는 요즘 재롱이 한창인 부경이가 “아빠 일찍 들어오세요”라고 전화하면 희식하기도

박차고 귀가한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엔 경현이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카네이션을 받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

“형편만 된다면 한 아이를 더 데리고 싶습니다.”

박씨 부부는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매달 영아 일시보호소로 자원봉사를 간다.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정을 나눠주고 싶어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상쾌한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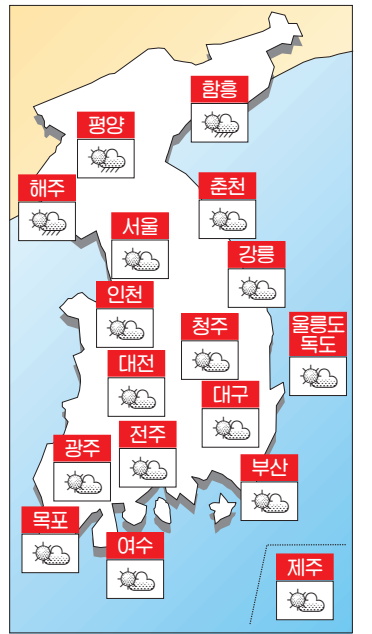
맑은 후 오후 늦게 흐려지겠다.

5월 11일

(음 3월 25일)



광주	차차 흐려짐	10~27
전주	차차 흐려짐	11~24
대구	차차 흐려짐	13~23
부산	차차 흐려짐	13~26
서울	차차 흐려짐	13~26
인천	차차 흐려짐	13~26
대전	차차 흐려짐	7~26
충주	차차 흐려짐	7~26
청주	차차 흐려짐	8~27
포항	차차 흐려짐	7~28
울릉도	차차 흐려짐	10~25
독도	차차 흐려짐	7~28
제주	차차 흐려짐	10~27
목포	차차 흐려짐	7~27
여수	차차 흐려짐	7~27
광주	차차 흐려짐	9~26



서해남부  
알바다=남서~서풍 파고 0.5~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알바다=남서~서풍 파고 0.5~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8:42 썰물 < 01:19  
목포 밀물 < 21:06 썰물 < 14:47  
여수 밀물 < 03:50 썰물 < 10:24  
여수 밀물 < 16:26 썰물 < 22:26

▲해돋이 05:32 ▲해질 19:26 ▲달돋이 01:58 ▲달질 13:0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씨						
최저/최고	15/21	12/25	12/25	14/27	16/24	16/26



### '해충 없는 날' 결의

10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열린 '주민 참여형 해충 없는 날' 캠페인. 행사 후 유태명 동구청장과 조영복 동구의회의장, 방역업체 직원·주민 등 3000여 명은 광주천 등 모기 서식처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

### “입양확인서 냈다가 아이 마음 상처 입힐라”

## 의료·교육비 혜택 못받는다

아들만 돌을 낳은 후 최근 딸(2)을 입양한 이모(43·광주시)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구청에서는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하라고 권유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딸만 홀로 이름이 올라가는 1종 건강보험 카드가 나오면서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인 가족의 건강보험 카드에서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종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거의 모든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가족과 분리된 건강보험 카드 때문에 상 처를 받고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의료비지원은 구청에서 따로 책정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정부가 입양가족에게 주는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등 입양 혜택이 부실한 시스템 탓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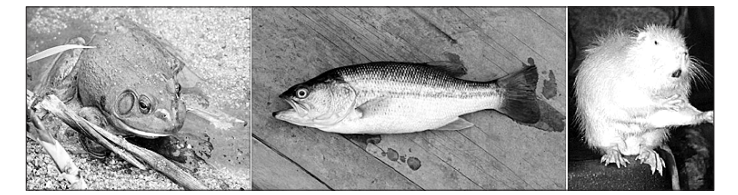
지난 2005년부터 미성년 입양아동에 주어지는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 입양아동은 각각 165명으로 최근 5년간 입양아동

897명에 비교해도 18.3%에 불과하다.

교육비 지원도 실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입양아동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양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부모들은 아이의 입양사실을 학교에 알리기 싫어 서류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입양아동 등록금 지원규모 등을 아예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로 면제혜택을 받는 입양가족은 드물다.

이러는 사이 광주의 국내 입양은 지난 2002년 176명에서 2003년 162명, 2006년에는 161명으로 감소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위험

### 외래동물 40종 위해성 1~2등급 분류

국내에 도입된 외래동물 중 황소개구리·큰입배스·뉴트리아(일명 늪너구리)·떡붕어·서양뿔영벌 등 40종이 생태계 위해성 1~2등급으로 분류돼 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이나 관광을 포함해 국내에 도입된 외래동물은 모두 607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된 외래동물 607종은 포유류 128종, 파충류 124종, 어류 147종, 조류 95종, 양서류 10종, 곤충 48종, 절지동물 45종, 연체동물 7종, 척척·자포동물 3종 등이다.

생태계 위해성 1등급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높고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생물로 조절 내지 퇴치가 필요한 교란종이며 2등급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종을 말한다. 위해성이 가장 큰 생태계 교란종(1등급)은 황소개구리와 큰입배스·파랑불우리·붉은귀개복 등 4종으로 파악됐다.

2등급은 뉴트리아·떡붕어·왕우렁치·붉은 개재·대서양언어 등 36종이다.

뉴트리아는 남미가 원산이고 식용, 모피용으로 수입됐으며 2001년 10월 정부가 가족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경남 양산 등 남부 지방에서 수초 및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위는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도입돼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생물로 조절 내지 퇴치가 필요한 교란종이며 2등급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광주 삼도동서 통일 쌀 재배키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이하 본부)는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사무실에서 광주시 농민회와 ‘통일 쌀 가꾸기’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협약에 따라 오는 30일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6천500여 평에 통일 쌀 모내기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 행사는 1계좌당 5천원씩의 시민 모금운동으로 추진되며, 가을에

추수한 쌀을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한미 FTA로 고통받는 농민과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장화동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통일 쌀 재배면적을 20만~30만 평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점차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서울대 정시 합격 최소 수능 등급점수

## 인문계 148점·자연계 133점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능 등급 점수가 인문계 148점, 자연계 133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10일 공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설명

자료’에서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의 수능 점수를 수능 등급제가 실시되는 2008학년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문계 148점, 자연계 133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연환뉴스

싱그러운 새 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축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모디쉬갤러리 Open Sale

MODISH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완성)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완성)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완성)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거실장식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1252-3001~2 / 금요일도 7층 ☎0621350-8764

# KARCHER 독일가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Hit 3000 로봇청소기, K55 전기빗자루, VR6100 진공청소기, SC 822 소형 스팀청소기, SC 1122 디럭스 스팀청소기, SC 1502 디럭스 스팀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